

# 빈곤의 지리학을 위하여: 지리 교과서의 빈곤 재현을 사례로

한지은\*

## For Geographies of Poverty: A Case Study of Poverty Representations in Geography Textbooks

Ji-Eun Han\*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 교과서에서 재현되는 빈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안적 빈곤의 지리학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맥락에서 빈곤 담론과 빈곤 재현의 정치를 검토하고, 초중등 지리 교과서에서 빈곤이 재현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빈곤 재현의 분석 결과 지리 교과서에서 빈곤은 남반구나 제3세계 도시 슬럼에서 기아로 고통받는 아동으로 타자화된 '상상의 지리'에 가까웠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빈곤의 지리학을 구성하기 위해 빈곤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빈민의 행위 주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빈곤 경험의 정동을 포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기아, 빈곤, 상상의 지리, 재현, 지리 교과서, 타자화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nalyze poverty representations in geography textbooks for alternative geographies of poverty.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poverty concepts and discourses and examined politics of poverty representations in geography textbooks. Until now, poverty often were represented as starving children in urban slums of global south or the third world in textbooks. For constructing geographies of poverty, I proposed to understand poverty in multidimensional aspects, and to reveal agency of people in poverty and affects of poverty.

**Key Words :** Geography textbooks, Imaginative geographies, Othering, Poverty, Representation, Starvation

### I. 들어가며

빈곤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그동안 빈곤에 대한 논의는 주로 복지나 국제개발과 관련된 학계나 정책 결정자들의 몫으로 여겨졌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매체에서 빈곤은 굶주린 어린이를 돕는 국제구호기금의 캠페인이나 달동네 연탄 나눔에 참여한 유명인의 미담거리로 등장하곤 했다.

빈곤은 언제나, 어느 곳에도 있으나, 빈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공간을 넘어 합의되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빈곤 문제의 상당수는 과거에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고, 동시대 서로 다른 지역에서도

주로 경제 개발 정도에 따라 빈곤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빈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공간적 맥락에서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즉 '빈곤 개념'을 검토해야 한다. 빈곤 개념 연구는 빈곤에 관해 이야기하고 시각화하는 방식, 즉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 '빈곤 담론'도 아우른다. 빈곤에 대한 담론은 정치권, 학계, 언론 등 다양한 공론장에서 형성되며, 이는 사회 전반이 빈곤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Lister, 2021, 장상미 역, 2022:17).

본 연구에서는 빈곤 개념과 빈곤 담론 모두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빈곤을 둘러싼 개념과

\*한국교육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innyhan@knue.ac.kr)

담론은 언론과 출판, 대중매체 등 다양한 사회적 재현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재현으로서 교과서는 대중적 믿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지리학 학문공동체의 빈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적 믿음과 지리학의 학술적 인식을 드러내는 사회적 텍스트로서 지리 교과서를 사례로 빈곤이 재현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안적인 빈곤의 지리학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리학 이외에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매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빈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빈곤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확인하고, 사회적 맥락에서 빈곤 담론과 빈곤 재현의 정치를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2015 교육과정의 초중고 지리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 사진과 지도, 내러티브, 학습활동 등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서 빈곤이 재현되는 양상과 문제점을 확인할 것이다. 끝으로 대안적 관점에서 빈곤의 지리학을 재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측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빈곤 담론과 빈곤 재현의 정치

### 1. 빈곤을 정의하는 문제

빈곤에 대한 이해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굶주리는 사람을 보고 가난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굶주림이 빈곤을 대표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최저생활(subsistence)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 개념이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생계비가 절대적 빈곤선(poverty line)에 못 미치는 상태로 정의되는 절대적 빈곤은 영양 결핍, 낮은 기대 수명, 높은 유아 사망률과 같은 지표들로 측정되며, 대표적 사례가 곧 기아(飢餓)이다.

그러나 Peter Townsend(1979)는 절대적 빈곤이 가정하는 최저 수준의 필요는 동시대 영국의 사회적 맥락과 동떨어진 협소한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의 이해를 주장했다. 상대적 박탈이란 '사람이 역할을 맡고 관계를 맺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부응해야 할 덕목에 걸맞은 관계적인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삶의 조건, 즉 식단, 편의, 생활 수준, 서비스 등을 전혀 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Townsend, 1979:31; Lister, 2021, 장상미 역, 2022:40에서 재인용).<sup>1)</sup>

상대적 박탈의 관점에서 빈곤은 물질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이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에게는 생리적이거나 신체적 필요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기대와 책임, 그리고 법 제도적 원칙 등이 중요하다(Lister, 2021, 장상미 역, 2022:40). 이처럼 상대적 관점으로 빈곤을 바라보게 되면 빈곤은 과거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이 아니라, 동시대의 전 세계적 문제가 된다.

그러나 빈곤을 상대적으로 정의하는 관점은 인구 대부분이 극단적 빈곤에 놓인 국가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단만이 빈곤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Amartya Sen은 빈곤 개념에는 축소할 수 없는 '절대론적 핵심(absolutist core)' 있고 그 핵심에 굶주림과 영양실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en, 1983:159).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개념은 단순히 빈곤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빈곤 문제를 두고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빈곤을 절대적으로 협소하게 정의하면 빈곤 퇴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자원이 제한된다는 좌파의 비판과 상대적 빈곤 개념은 빈민의 수를 부풀리고 부유층에 대한 질서를 불려일으킨다는 우파의 공격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절대적 빈곤 개념과 상대적 빈곤 개념 모두 빈곤을 물질적 자원의 부족으로만 이해한다는 점에서 Sen(1992; 1999)은 빈곤을 '역량(capability)'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빈곤은 최소한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기본 역량의 상실이라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관점은 국제개발학과 후생경제학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경제성장이나 GDP 증가를 넘어 '견딜만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선택과 기회의 부정으로서의 빈곤'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이다(Lister, 2021, 장상미 역, 2022:32). 1990년 이후 시작된, 소득 이외에 기대 수명, 성인 문자 해독률을 고려하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역량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대표적 사례이다.

이에 빈곤 개념의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해 Lister(2021, 장상미 역, 2022)는 빈곤의 물질적 측면과 관계적·상징적 측면을 동등하고 의존적인 관계로 표현하는 빈곤 수레바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수레바퀴의 중심에는 빈곤의 물질적 핵심이 자리하고, 수레바퀴의 바깥쪽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겪는 빈곤의 관계적이고 상징적 측면을 나타낸다. 수레바퀴의 중심과 바깥은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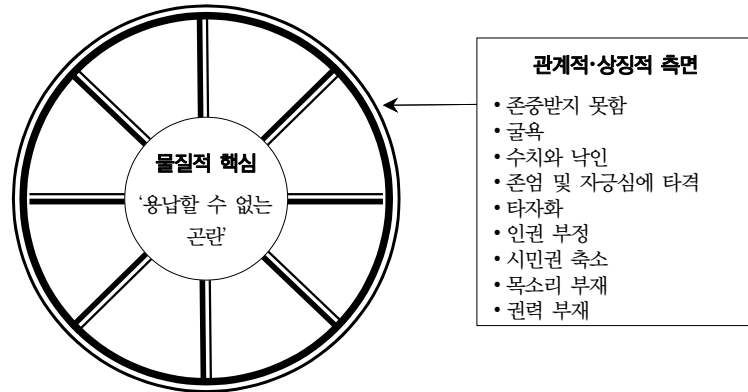


그림 1. 물질적·비물질적 빈곤 수레바퀴

출처 : Lister, 2021, 장상미 역, 2022:24 수정 후 인용

사회적으로 구성되는데, 중심의 물질적 핵심은 사회적·문화적으로 정의되고, 관계적·상징적 바퀴를 통해 매개되고 해석된다. 빈곤은 수레바퀴를 따라 물질적 핵심을 넘어 사회문화적 공간 안에서 사회적 고통을 유발한다 (Lister, 2021, 장상미 역, 2022:24).

## 2. 빈곤 재현의 정치

나는 그렌펠타워<sup>3)</sup> 사람들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혼잡하고 부산한 고층 아파트 생활, 어둡고 더러운 계단통, 오줌과 꼬팍한 개털 냄새가 나고 고장이 잦은 엘리베이터, 성미 까다로운 수위, 특히 밤에 건물을 드나들 때 느끼는 불안을 나도 안다. 하늘 높이 난 창으로 보이는 전망이 매우 멋지지만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느낌, 위아래와 양옆이 수백 명은 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느끼는 고립감을 알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고층 아파트가 주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듯이 취급받는 느낌을 알고 있다.

(McGarvey, 2017, 김영선 역, 2020:11)

빈곤 수레바퀴는 빈곤을 이해하려면 소득과 같이 경제적으로 표현되는 물질적 핵심뿐만 아니라 빈곤으로 인해 야기되는 타자화, 낙인과 수치심 등 관계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빈곤의 관계적·상징적 요소는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권력관계는 특정 담론을 매개로 드러나는데 이는 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내러티

브, 개념,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는 경쟁 담론으로서 일종의 ‘담론장(discursive field)’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Duncan, 1990:16). 빈곤의 담론장은 빈곤을 다루는 다양한 사회적 재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재현들은 빈곤을 이해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실천에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권력 집단이 어떻게 배제된 집단을 ‘타자(other)’로 구분 짓고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집단을 중심부에 두는지 탐구해 왔다(Jackson, 1992; The Newcastle Social Geographies Collective, 2020, 박경환·심승희·이재열 역, 2023:35). 언론과 출판, 대중매체에서 빈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재현의 체계를 살펴보면 인종, 젠더, 연령, 장애 등 소수집단에 대한 타자화(othering)가 가난한 사람들의 재현에서도 반복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사회 내에는 주류집단과 비주류집단이 있으며 흔히 타자로 불리는 집단은 주류집단에 의해 그 가치가 저평가되고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일반 지식으로 고착된다. 비주류집단을 ‘비정상적’으로 재현하는 이미지는 그 집단이 살아가는 공간에도 투영되는데 Sibley(1992)는 이를 ‘배제의 경관(landscapes of exclusion)’으로 칭했다. 주류집단은 동질적이고, 정상적이고, ‘순수한(pure)’ 반면, ‘타자(outsiders)’는 비정상적이고 따라서 ‘오염된(defiled)’ 것으로 재현된다. 이처럼 친숙한 자신들의 공간과 그 공간 건너편에 있는 생경한 ‘그들의(other)’ 공간을 마음속에서 이름 붙여 구별하는 방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구적인 실제밖에 갖지 못한 ‘상상의 지리(imaginative geographies)’라 할

수 있다(Said, 1978; Shields, 1991:29).

가난한 사람들은 “타락의 근원, 위협, 경제적 짐 덩어리, 연민의 대상, 이국적인 존재, 나아가 인간 이하의 존재”로 타자화되곤 했다(Lister, 2021, 장상미 역, 2022: 119). 이러한 타자화는 빈곤의 책임은 가난한 개인에게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데, ‘빈곤의 문화(culture of poverty)’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sup>4)</sup> Lewis(1975)는 빈민들은 물질적 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빈곤을 영속시키는(poverty-perpetuating)’ 가치 체계를 갖게 되는데 이를 빈민들이 공유하는 하위문화로 파악했다. ‘빈약하고(thin) ‘피상적인(superficial) 빈곤의 문화는 그 속에서 성장하는 가난한 아이들의 세계관, 열망, 성격 등에 영향을 주고, 결국 빈민들은 주변성, 무력함, 의존성, 소속감의 부재, 무가치함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는 것이다.

빈곤에 대한 타자화는 사회의 문제를 손쉽게 문제 있는 개인의 탓으로 돌리게 하고, 빈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문제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상징적 배제 전략’으로 쓰인다. 이는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처럼 타자화에 내재하는 차별적인 태도가 제도 속에 정착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빈곤차별주의(povertism)’라고 불리기도 한다(Lister, 2021, 장상미 역, 2022:122).

한편 빈곤의 문화가 만연한 빈곤의 장소에 대한 사회적 재현은 주로 세계의 특정 지역, 이른바 ‘제3세계’나 ‘남반구’<sup>6)</sup>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대중매체에서 국제 구호기금이나 개발원조의 대상으로서 이들 지역의 빈곤을 재현하는 방식은 빈곤을 볼거리로 대상화한다는 측면에서 ‘빈곤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of poverty)’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Smillie, 1995:136; Lamers, 2005: 38에서 재인용). Lamers(2005)는 구호기금 모금 캠페인 포스터에 등장하는 ‘타자(the other)’와 ‘자아(the self)’의 뚜렷한 이분법을 표1과 같이 요약했다.

오늘날 빈곤을 타자화하고 볼거리의 대상으로 삼는 또 다른 현상에는 빈곤의 장소로서 주로 도시의 슬럼 지역을 관광지로 삼는 ‘슬럼 관광(slum tourism)’이 있다. ‘빈곤 관광(poverty tourism)’이라고도 불리는 슬럼 관광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주거지역 타운십(township), 브라질의 도시 빈곤 지역인 파벨라(favela), 아시아 최대 슬럼으로 유명한 인도 뭄바이의 다라비(Dharavi), 심지어 인천의 팽이부리말과 같은 국내에서도 확인된다(Freire-Medeiros, 2009; Rolfes, 2010; 오수진, 2018).

Steinbrink(2012)는 슬럼 관광은 19세기 말 영국 런던에서 빈민가(주로 East End)를 구경하는 상류계층의 여

표 1. 모금 포스터 속의 이분법

타자	자아
아동	성인
무지한	현명하며, 식견 있는
수동적인	능동적인
무력한	유능한

출처 : Lamers, 2005:54.

가활동을 일컫는 ‘슬러밍(slumming)’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한다. 빈곤에 대한 타자화를 바탕으로 한 슬러밍은 20세기 초가 되면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 리틀이탈리아(Little Italy) 등 이민자 거주지로 확대되었고, 이는 오늘날 글로벌 남부, 제3세계 지역의 슬럼에서 나타나는 관광 유형과 닮아있다는 것이다(Steinbrink, 2012:229).

슬럼 관광은 도시의 특정 지역, 주로 슬럼을 찾아서 빈곤을 경험함으로써 빈곤을 구체화하고 시각화한다. 슬럼은 관광객에게 ‘도시의 이면(the other side of the city)’인 동시에 ‘타자의 장소(place of other)’로 구성된다. 이때 타자는 단순히 경제적 의미가 아닌 문화적 의미이며 이처럼 빈곤을 ‘문화화(culturalization)’하는 것이 슬럼 관광의 본질이다(Steinbrink, 2012:229). 마르크스가 자본주의하에서 모든 것들이 상품으로 변모하지만, 결코 사고팔 수 없는 것 중 하나라고 보았던 빈곤은 오늘날 지구적 규모에서 관광을 통해 소비 ‘상품’으로 구성되고 있다(Freire-Medeiros, 2009:586).

지금까지 살펴본 빈곤 개념과 빈곤에 대한 담론은 정치권, 학계, 언론 등 다양한 공론장에서 형성되며, 언론과 출판, 대중매체 등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됨으로써 사회 전반이 빈곤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서는 교과서를 빈곤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사회적 텍스트로 파악하여 지리 교과서에서 빈곤을 개념화하고 재현하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 III. 지리 교과서에서 빈곤 재현의 문제

#### 1. 사회적 텍스트로서 지리 교과서와 빈곤

“교과서는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창”으로, 보통의 책보다 엄격하게 심사된 사회적 진술이다(Blaut, 1993, 김동택 역, 2008:31). 따라서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대중적 믿음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낸다. Yapa (2002)는 지리 교과서를 상호텍스트적으로 파악할 때 교과서에는 대중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물려받은 인식론이 담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리 교과서에서 빈곤을 개념화하고 빈곤이 재현되는 양상은 빈곤에 대한 대중적인 믿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지리학 학술공동체가 빈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를 사회적 텍스트로 파악하며, 지리 교과서에서 빈곤을 개념화하고 재현하는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상상의 지리'에 가까운 빈곤 재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2015 교육과정의 초중고 지리 교과서로, 교과서 사진과 삽화를 비롯하여 개념 설명, 학습활동 등 교과서에서 빈곤을 다루는 사례 전체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표 2는 2015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빈곤 관련 단원과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확인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지리 교과에서 빈곤은 기아와 저개발의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구적 차원의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따라 빈곤은 주로 저개발 국가의 인구 및 도시 문제와 연결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2015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빈곤 개념이 처음으로 다루지는 것은 초등학교 사회 6학년 2학기 <지속가능한 지구촌> 단원으로 검토한 총 7종의 교과서 중 개념 설명이 등장하는 4종의 교과서에서는 빈곤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개념 설명을 살펴보면 빈곤은 가난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움'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의식 주로 대표되는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표 2. 2015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빈곤, 기아, 저개발

교육과정	단원 및 내용
초등학교 사회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지속가능한 지구촌(6사08-06)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b>빈곤과 기아</b>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중학교 사회	(6)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내전과 <b>빈곤</b> 에 시달리는 이유를 이해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왔는지 관심을 갖는다. (12) 더불어 사는 세계 [9사(지리)12-02] 다양한 지표를 통해 지역별로 발전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저개발 지역의 <b>빈곤</b>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조사한다.
고등학교 세계지리	(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12세계]07-0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이 겪고 있는 분쟁 및 <b>저개발</b> 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주요 요인을 식민지 경험이나 민족(인종) 및 종교 차이와 관련지어 추론한다.
고등학교 여행지리	(4)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12여지]04-02 분쟁, 재난, <b>빈곤</b> , 환경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지역으로의 봉사여행이 지역과 여행자에게 주는 긍정적 변화를 탐구하고 인류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고 실천 방법을 모색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8) 세계화와 평화 <탐구 주제 및 활동(예시)> 제3세계의 <b>기아</b> 문제와 빈부 격차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원조 사례를 조사한다.

출처 : 교육부, 2015.

표 3. 초등 사회 교과서에서 빈곤에 대한 정의

개념 설명	출처
가난하여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d출판사 91쪽
가난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c출판사 142쪽
가난으로 인해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e출판사 133쪽
최소한의 욕구(의식주, 의료, 교육 등)를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	b출판사 142쪽

나 생계비의 부족이라는 빈곤에 대한 절대적이고 물질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처럼 지리 교과서에서 빈곤을 절대적이고 물질적 상태로 개념화하고 지구적 차원에서 기아나 저개발 문제와 연관지어 다루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빈곤을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생계비가 절대적 빈곤선에 못 미치는 상태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교과서 속에 빈곤은 영양 결핍, 낮은 기대 수명, 높은 유아 사망률과 같은 몇 가지 지표들로 축소되었다. 둘째, 빈곤은 영양실조나 굶주림 같은 극단적 빈곤 상태에 처한 지역, 대표적으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같은 동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외부화하는 동시에 빈민을 굶주리는 흑인 아동으로 '인종화(racialization)'하였다. 셋째, 빈곤을 경제적으로 저개발 상태라는 발전주의적 관점<sup>8)</sup>으로 이해함으로써 빈곤 지역과 그곳의 사람들은 국제 구호나 개발원조로 대표되는 외부의 도움에 의지하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타자화되었다.

다음에서는 교과서의 사진, 지도 및 그림 자료, 본문의 내러티브와 학습활동 등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리

교과서에서 빈곤이 재현되는 양상과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 2. 저개발 국가의 '기아'와 동일시되는 빈곤

### 1) 굶주림에 고통 받는 아동

그동안 교과서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부정적으로 재현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비판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다원·한건수, 2012; 김민성, 2013; 조성욱, 2018). 지역지리 서술에서 부정적이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상당수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리 교과서에서 빈곤은 여전히 저개발 국가,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문제로 제시된다. 빈곤을 아프리카 등 저개발 지역의 문제로 제시하는 사례에서 더욱 큰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이 빈곤을 재현하는 수단이 된다(조철기, 2014:33)"는 점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르기까지 빈곤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사진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과서 사진들에서 빈곤은 구호 모금 포스터를 분석한 Lamers(2005)의 연구에서처럼 수동적


 <p>f출판사 사회 6-2 135쪽</p>	 <p>b출판사 사회 6-2 142쪽</p>	 <p>c출판사 사회 6-2 142쪽</p>
 <p>c출판사 중학교 사회2 214쪽</p>	 <p>h출판사 중학교 사회2 212쪽</p>	 <p>d출판사 중학교 사회2 218쪽</p>
 <p>i출판사 고등학교 통합사회 281쪽</p>	 <p>g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지리 196쪽</p>	 <p>i출판사 고등학교 통합사회 121쪽</p>

그림 2. 지리 교과서에서 굶주리는 아동 사진

이며 무력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데,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신체와 축 늘어진 자세 등은 모두 굶주린 아동이라는 재현을 통해 빈곤을 타자화하고 시각화하는 사례이다.

한편 교과서 사진 속 아동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무기력한 모습인 동시에 대부분 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 이는 빈곤을 저개발 국가, 특히 '검은 아프리카' 지역의 문제로 이해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인 동시에 교과서에서 빈곤을 인종화하는 문제를 드러낸다.

빈곤의 인종화는 교과서 사진뿐 아니라 삽화에서 두드러지는데, 그림 3에서 보듯 빈곤과 기아에 처한 사람들은 교과서 내 다른 삽화 속 인물들과 달리 짙은 피부색과 곱슬머리로 특징 지워진다. 더욱이 그림 속 배경과 인물들의 가벼운 옷차림은 빈곤과 열대나 건조 기후 지역을 연결 짓는 '상상의 지리'를 반영하고 있다.

## 2) '제3세계'를 빈곤 지역으로 고정하기

교과서에서 빈곤을 제3세계 지역의 기아 문제와 동일시하여 재현하는 또 다른 사례는 세계의 기아 및 영양 결핍 인구의 분포를 보여주는 세계지도이다. 2015 교육과정의 초등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지리 교과서에는 세계의 기아 인구나 영양 결핍 상태 아동의 분포를 그린 지도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지도

자료는 빈곤에 대한 절대적 관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빈곤을 영양 결핍, 낮은 기대 수명, 높은 유아 사망률과 같은 극단적 지표들로 축소한다. 무엇보다 이는 세계의 빈곤 문제를 기아와 영양 결핍 인구 비율 등의 지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 지역만의 문제로 외부화 한다.

제3세계를 빈곤 지역으로 고정하는 사례는 주로 교과서의 학습 활동 영역에서 확인된다. 표 4에서 보듯이 초등과 중학교 교과서에는 세계에서 기아 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대륙, 국가, 지역을 찾는 탐구 학습 활동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세계의 빈곤 문제를 동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나 영양 결핍 상태와 동일시하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대표되는 저개발 지역을 절대적 빈곤과 관련된 부정적 재현에 가둔다는 문제가 있다.

아프리카 대륙을 빈곤 지역으로 찾아내는 탐구 학습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세계의 기아나 영양 결핍 인구를 보여주는 차트와 사진의 설명글에서 빈곤은 여전히 아프리카나 제3세계의 문제로 다뤄진다. "기아와 기근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들(i출판사 고등학교 통합사회 281쪽)",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만성적인 빈곤,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d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지리 177쪽)", "기아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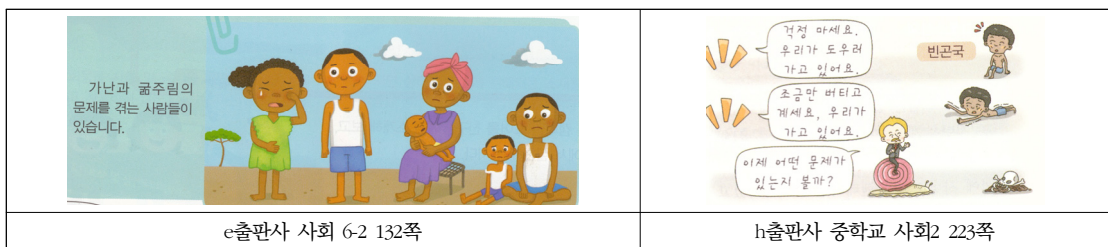


그림 3. 교과서 삽화에서 빈곤의 인종화

표 4. 세계 기아 탐구 학습 활동

탐구 학습 활동	출처
영양 결핍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 )에 많이 있네.	f출판사 사회 6-2(134쪽)
기아 인구 비율이 35%가 넘는 지역에 동그라미를 쳐 봅시다.	c출판사 사회 6-2(143쪽)
영양 결핍 인구 비율이 낮은 대륙과 높은 대륙을 찾아 써 봅시다.	b출판사 사회 6-2(143쪽)
영양 부족 발생률이 15% 이상인 국가를 찾고, 해당 국가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대륙을 찾아 써 보자.	h출판사 중학교 사회2(215쪽)
기아 문제가 심각한 대륙과 주요 국가들을 사회과 부도에서 찾아보자.	c출판사 중학교 사회2(217쪽)
영양 결핍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 )이며, 아시아도 상대적으로 영양 결핍 인구 비율이 높다.	e출판사 중학교 사회2(224쪽)
주로 어느 대륙에서 기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지 써 보자	i출판사 중학교 사회2(217쪽)
지도에서 기아가 심각한 대륙을 찾아보자.	d출판사 중학교 사회2(225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부 아시아(g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지리 196쪽) 등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의 지문은 그 사례이다.

이처럼 빈곤을 기아와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만 빈곤을 제3세계에 국한된 문제로 외부화하는 문제도 변화가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물질적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지만 “빈곤층에 대한 망신주기와 낙인찍기, 차별적 관행이 빚어내는 심리사회적 빈곤 경험은 어디서나 비슷하다”(Walker, 2014:197; Lister, 장상미 역, 2021:16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로 여겨지는 미국의 ‘White Trash’, ‘Trailer Trash’<sup>9)</sup>, ‘Rednecks’<sup>10)</sup>, ‘Hillbillies’<sup>11)</sup>나 영국의 ‘Chav’<sup>12)</sup>라 불리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재현은 최근 수많은 문학과 영화 등에서 확인되는데, 부유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빈곤에 대한 타자화와 낙인찍기는 가난한 나라와 비교하여 적지 않다. 더욱이 부유한 지역에서 빈곤이 개인의 문제이자 부끄러운 일로 이해될 때, 가난한 이들이 겪게 되는 관계적이고 상징적인 빈곤 경험은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다.

우리가 ‘빈곤선 아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 부유한 백인들에게는 백인이면서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이 혐오스럽게 비치지. 그래서 나의 출신 지역인 그레이트플레인스를 미국 주요 지역에서는 거대한 문화적 황무지로 치부해버려. 그 위를 육로로 지나가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듯 ‘날아서 건너는 땅(Flyover country)’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낙후되었다’고 말하고 ‘레드넥(Rednecks)’이라는 별명으로 불러. ‘쓰레기(trash)’라고도 하고.

(Samrsh, 2018, 흥한별 역, 2020:30-31)

### 3) 빈곤의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해외 원조

빈곤을 기아와 동일시하고, 아프리카로 대표되는 제3세계를 빈곤 지역으로 고정하는 지리 교과서의 재현은 이들 지역에서 빈곤 문제의 해결은 해외 원조 같은 외부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물론 지난 세기부터 국제적 구호 활동이나 공적 개발 원조(ODA) 덕분에 전쟁, 재난과 같은 긴급한 위기에 처한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빈곤에 대한 왜곡된 재현을 바탕으로 국제구호기구의 역할과 해외 원조를 강조하는 현재의 교과서 서술은 몇 가지 위험성을 갖는다.

먼저, 교과서에서는 제3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원조의 효과에 대한 서구 경제학의 오래된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해외 원조의 득실에 관한 논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Jeffrey Sachs(2005)는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까닭은 ‘열대의 불모지’와 같은 특유의 지리적 조건 때문이며, 가난한 나라가 이른바 ‘빈곤의 덫(poverty trap)’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대대적인 외부의 해외 원조가 제공되어야만 빈곤을 종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William Easterly(2006)는 해외 원조는 국제 원조 기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피원조국을 부패로 내몰아 제3세계의 빈곤을 영속화시킨다고 비판한다.

제3세계 지역의 빈곤 해결을 위한 해외 원조 관련 논쟁은 언뜻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모두 가난한 나라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Banerjee and Duflo(2011)는 ‘무작위 대조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외부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무지해 보이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합리적’ 이유를 부정확한 정보와 제한된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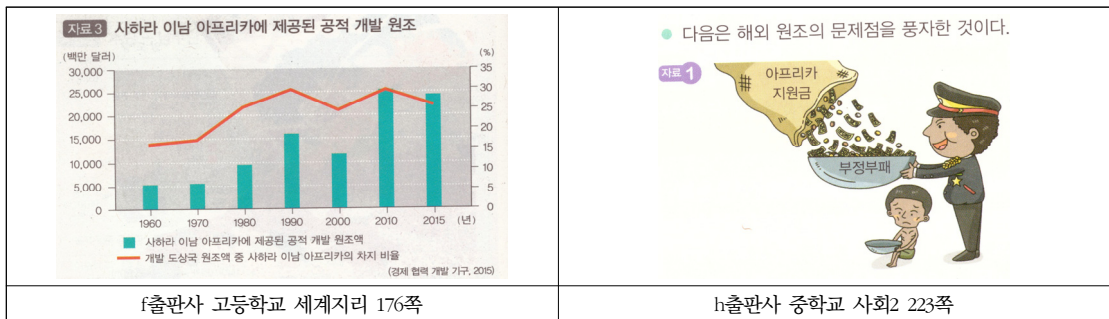


그림 4. 빈곤 해결을 위한 해외 원조



등으로 설명하면서, 그동안 원조 관련 논쟁에는 가난한 사람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상투적인 개념으로 단순화하려는 버릇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문학작품이나 사회이론에서도 가난한 사람의 천성이 게으르다고 보는 입장과 진취적이라고 보는 입장, 고결하다고 보는 입장과 도벽이 있다고 보는 입장, 다혈질이라고 보는 입장과 소극적이라고 보는 입장, 무능력하다고 보는 입장과 생활력이 강하다고 보는 입장이 엇갈린다. ... 가난한 사람들은 간혹 감탄이나 동정을 유발하는 이야기의 등장인물로 여겨질 뿐, 그들을 지식의 원천 혹은 무언가 의견을 물어볼 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다. ... 누구에게나 욕구와 약점은 있다. 빈자가 부자보다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할 때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한다. 꼼꼼한 경제학자처럼 행동해야 생존이 가능한 까닭이다.

(Banerjee and Duflo, 2011, 이순희 역, 2012:6)

따라서 저개발 지역의 빈곤 문제 해결과 해외 원조를 직접적 인과관계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곤은 어떻게 경험되는지, 빈곤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외부의 지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해외 원조를 세계 빈곤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교과서 서술은 학생들의 기부나 봉사 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세계시민성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기부와 봉사에 대한 강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빈곤을 타자화하는 관점에 기반한 기부 활동은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편견을 심화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빈곤과 기아를 동일시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용돈이나 식사 비용을 아껴 기부하는 행동의 목표는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영양 공급 등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례로 해외 빈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TV 방송과 온라인 프로그램 등에서 빈곤을 재현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최근 연구(김춘식·채영길·정낙원, 2015; 김지숙, 2017; 장석빈, 2018)들에 따르면 자선 행위를 위

해 필요한 동정심을 이끌고자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부각하는 ‘빈곤 포르노그래피’<sup>15)</sup>는 대상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이미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부문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원조와 국제 구호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교과서 내용에는 한국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근의 상황에 대한 국가주의적 자부심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조문영은 정부와 국제기구·기업·대학·시민사회가 동맹을 확장해 온 ‘글로벌 빈곤’ 사업에 한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현실과 경제적 불안과 실존적 결핍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글로벌 빈곤 퇴치의 책무를 자임하게 되는 역설을 현장 연구를 통해 조망했는데(조문영, 2022:195), “청년을 해외 자원봉사의 주요 주체로 구성해내면서 산업의 ‘위기를 글로벌 리더 창출이라는 ‘호기’로 바꿔치기 했다”(조문영, 2022:212)는 비판은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기부 및 봉사 활동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과서 서술에서 염두에 둘 지점이다.

### 3. 타자의 장소로서 도시 슬럼

지리 교과서에서 확인되는 빈곤 재현의 또 다른 양상은 빈곤을 저개발 국가의 도시 지역 안 특정 구역, 이른바 ‘불량주택지구’나 슬럼과 같은 도시적 경관으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주로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의 도시 문제를 비교하면서 저개발 국가의 ‘과도시화(overurbanization)’의 사례로 인도의 뭍바이나 브라질의 파벨라 등 도시 슬럼 경관 사진이 제시되고 있다. 교과서 사진 속에서 빈곤은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허물어질 듯 위태로운 지붕처럼 열악하고 과밀한 주거 공간, 쓰레기 더미에 둘러싸여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과 같은 경관으로 구체화 된다.

이러한 교과서 사진의 시각적 재현의 문제점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고통받는 주민들의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슬럼을 위험하고, 오염된 곳으로 낙인화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빈곤의 경관을 제거하는 일을 정당화한다는 데 있다. 도시의 오염이자 낙인된 장소로서의 슬럼이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 NGO 등의 지원을 받

은 도시미화 계획을 통해 재개발의 대상이 되면서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 멀고 열악한 판자촌으로 밀려가는 일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도시개발업자에게 슬럼이란 그저 없애야 할 도시의 해악이지만, 슬럼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낙후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산이 가능한 곳(Davis, 2006, 김정아 역, 2007:90)이며, “재개발지로 선정되어서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동네였지만 온 동네가 일터 같은 느낌을 주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네”(조은, 2012:15)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14)</sup>

교과서에서는 주로 저개발국의 도시 슬럼 경관을 통해 빈곤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해 왔지만, 연말연시 봉사활동의 무대가 되는 몇 곳 남은 쪽방촌이나 판자촌을 제외하면, 실제 한국 도시의 빈곤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나 수도권 외곽의 비

닐하우스촌 등 ‘비주택<sup>15)</sup>’에는 2015년 기준 39만 가구가 넘게 거주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 2019:28), 표 5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주거의 대부분은 1980년대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 도시의 판자촌이 급격하게 철거된 후 형성되었다. 이는 과거 빈곤 경관을 대표하던 도시의 판자촌은 사라졌지만, 고시원과 비닐하우스촌, 반지하셋방과 같은 ‘집 아닌 집’에서 도시의 빈곤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과서에서 도시는 슬럼으로 대표되는 빈곤의 장소로 재현되지만, 농촌의 빈곤을 다루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UNDP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세계 빈곤 인구의 84%가 농촌 지역에 살고 있고, 남부 아시아의 경우 87.5%에 달하는 3억 4천만 명의 빈곤 인구가 농촌에 거주한다(UNDP and OHPI, 2023). 따라서 빈곤을 도시만의 문제로 재현하는 것은 Raymond Williams(1973)가



그림 5. 저개발국가의 슬럼 경관 사진

표 5.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주거의 유형과 특성

	형성 배경	주된 시기	주요 거주자	합법 여부
토막	이농 및 도심 극빈층 거주지	조선 후기부터 해방 때까지	가족 단위 극빈층	불법이지만 목인
판자촌	급격한 이농 증가에 따른 응급 주거지	해방 이후 2000년대까지	가족 단위, 저소득층, 단신 세입자 포함	불법이지만 목인 양성화와 개량
영구임대주택	판자촌 해체 이후 대체 주거지	1990년대부터	가족 단위 빈곤층, 독거노인 다수	공식 임대주택
고시원	판자촌 해체 이후 역세권 단신 중심 거주	2000년대부터	단신 청년, 일용근로자	불법, 편법이었지만 법규로 관리
쪽방	역전 등에 오래전부터 형성	해방 이후	도심 생활형, 단신 빈곤층	불법, 편법이었지만 현실 인정
비닐하우스촌	판자촌 해체 이후 대체용으로 불법 조성	1980년대 후반부터	가족 단위 빈곤층, 최근 단신 확대	불법이지만 강제 철거는 자제
옥탑방	대학가 등에 부분 존재	1980년대부터	단신 청년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반)지하셋방	판자촌 해체 이후 저렴한 주거 공간	1980년대부터	가족 단위 서민층	합법이나 일부 편법

출처 : 김수현, 2022, 186쪽 수정 인용

지적인 '도시와 시골' 사이의 오래된 이분법이 빈곤의 재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지역 소멸 등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농촌의 낙후한 주거 환경, 열악한 기반 시설 등 다양한 농촌의 빈곤 문제는 전통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희석되고 심지어 낭만화되기도 한다. 빈곤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의 문제이기도 하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나 매캐한 아궁이가 남아있는 촌집, 식료품 구매나 필수적인 병원 진료를 위해 불편한 몸으로 자주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골 정류장은 노인의 빈곤과 모빌리티 빈곤이 교차하는 빈곤의 경관이기 때문이다.

#### IV. 맺으며: 빈곤의 지리학을 위하여

그동안 지리 교과서에서 빈곤은 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남반구나 제3세계 도시 슬럼에서 굶주림이나 열악한 환경에 고통받는 아동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이는 교과서 속의 빈곤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구적인 '상상의 지리학'에 가까웠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리 교과서에서 빈곤 재현의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을 절대적이고 물질적 개념으로만 접근함으로써 빈곤은 저개발 국가의 기아 문제와 동일시되었다. 굶주리는 무력한 아동이라는 타자화된 재현의 문제, 빈곤을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문제로 외부화하는 문제, 빈곤의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해외 원조를 강조함으로써 빈곤을 타자화하고 빈곤 지역에 대한 편견을 심화하는 문제 등을 확인했다. 둘째, 교과서에서 빈곤은 주로 제3세계 도시 슬럼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문제로 제시되었다. 이는 빈곤의 경관으로서 저개발국 도시 슬럼을 낙인화함으로써 생활과 노동의 공간으로서 슬럼의 역동성을 감추고, 한국의 도시와 농촌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확인되는 빈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15 사회과 교육과정과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빈곤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가 기대된다. 교육과정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변화는 빈곤을 기아와 저개발과 동일시하는 내용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지리 영역에서는 「세계시민과 지리」와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세 과

목에서 빈곤이 다루어지는데 주로 세계시민이나 인류에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22). 다만 변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빈곤을 세계적 문제로만 다루므로써 기존 지리 교과서에서 확인한 빈곤 재현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우려가 남아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대안적인 빈곤의 지리학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빈곤을 새롭게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빈곤은 인종, 젠더, 연령, 장애 등을 둘러싼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과 이들에 대한 배제가 교차하는 다차원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지리 교과서에서는 빈곤을 기아와 동일시함으로써 굶주림이나 영양 결핍 이외에 현재의 빈곤이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 어떻게 다른 사회적 배제와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가난은 직선이 아니다. 사회적 병폐들이 단단하게 엮인 매듭이다. 가난은 범죄, 건강, 교육, 주택 등 우리가 관심을 갖는 모든 사회문제와 관계되어 있다(Desmond, 2023, 성원 역, 2023:62)."

둘째, 빈민의 행위 주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현재 지리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빈곤 재현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을 타자화한다는 데 있다. 빈민들의 고통을 타자화하고 빈곤에 처한 당사자의 필요와 목소리가 제거된 방식으로 빈곤을 이해하는 것은 원조나 기부,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빈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강화하고 빈민들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가난의 굴레로 인해 청소년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굴절되고 다시 일어나는지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기록한 최근 강지나(2023:7)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빈곤의 장소들의 '정동(affect)'을 포착해야 한다. 빈곤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으며, 물질적, 담론적, 정동적 힘이 얽히는 과정이다(조문영, 2022:8). 빈곤은 시각뿐 아니라 냄새와 소리로 포착된다. 또한 빈곤은 굶주림뿐 아니라, 무더위와 추위, 해충과 곰팡이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육체적 고통으로 체감된다. 무엇보다 빈곤으로 인한 배제가 야기하는 불안, 고립감, 수치심과 같은 감정들은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지만, 굶주림만큼이나 가난한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따라서 빈곤의 정동은 그동안 시각 중심의 재현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빈곤을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사회적 재현이자 상호텍스트로서 교

과서에서 빈곤을 다루는 방식과 문제들을 검토한 이유는 지리 교과서에는 우리 사회와 지리학 학술공동체가 빈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에 대한 상상의 지리를 벗어나 대안적 빈곤의 지리학을 구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대중이자 연구자로서) 빈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註

- 1)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에 잘 맞거나 적어도 사회에서 장려하거나 승인하는 식단으로 먹고,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생활 조건과 편의를 누릴 만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그런 개인, 가족, 집단은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수준보다 심각하게 자원이 부족한 탓에 평범한 생활양식과 활동에서 배제된다”(Townsend, 1979:31; Lister, 2021, 장상미 역, 2021:40에서 재인용).
- 2) 이처럼 빈곤 퇴치를 ‘인간 개발’, 즉 사람의 자유와 자긍심,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는 역량 중심의 관점에 대해 “신자유주의 경제에 뿌리를 둔 개인주의의 정교한 적용을 뜻한다”고 혹평하기도 한다(Townsend, 1993:136; Lister, 2021, 장상미 역, 2022:38에서 재인용).
- 3) Grenfell Tower는 영국 런던 노스켄싱턴에 위치한 24층 건물로 2017년 6월 14일에 대형 화재로 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다. 참사의 원인은 1967년 건축된 노후 아파트였지만 개보수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가연성 내장재를 쓰거나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ouncil housing이었던 이 건물에 거주한 약 600명의 입주민 대부분이 이민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었다는 점에서 이 비극의 근본 원인은 그동안 영국 사회가 빈곤을 다루어온 방식에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컸다.
- 4) Oscar Lewis는 멕시코시티 빈민촌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쓴 *Five Families: Mexican Case Studies in the Culture of Poverty*(Lewis, 1975)에서 어느 사회든 빈곤층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며 그들만의 문화로 인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했

- 다. 그는 빈곤의 문화를 가족구조, 대인관계, 경제 습관, 가치관 등의 60여 가지의 특징으로 구분하였다. 대표적으로 빈민들은 대가족을 벗어난 최소한의 가족, 보호 단계로서 유년기의 부재 등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주변성, 무력감, 의존성, 취약성을 갖게 된다. 빈곤문화론은 중산층의 관점으로 빈곤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돌리고 사회적 원인을 은폐하는 이론이라고 비판하는 구조적 접근에서는 빈민의 생활 습관은 고유한 문화라기보다 인종이나 계급의 불평등한 구조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신명호, 2013:24-139).
- 5) ‘제3세계(the third world)’는 본래 제1세계(자본주의)와 제2세계(사회주의)에 속하지 않는 비동맹 국가들을 일컫는 지정학적 개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가난하고 덜 발전된 남쪽 어딘가”를 지칭하는 경제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Sheppard *et al.*, 2009, 남수연 역, 2019:27).
- 6) ‘남반구’라는 개념은 산업화가 덜 진행된 국가를 보다 풍요롭고 산업화된 북쪽의 국가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는 미국과 서유럽을 기준으로 한 위치에 따라 정의되었다는 점,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의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Sheppard *et al.*, 2009, 남수연 역, 2019:65).
- 8) 발전을 경제적 판단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생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기준들, 인간관계의 질, 신체적 건강, 영적 건강 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McMichael, 2011, 조효제 역, 2013:105).
- 9) 사전적 정의는 “트레일러에 사는 빈민”(Merriam Webster,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trailer%20trash> 2024-02-16 검색)으로, 미국의 유통기업 Amazon에서 ‘CamperForce’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성수기 물류창고에서 계절성 노동자로 고용하면서, ‘workamper’라 부르기도 한다. 워캠퍼에 대해서는 Bruder(2017)를 참조.
- 10) 사전적으로는 “미국 남부의 백인 노동자”로 정의되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Merriam Webster,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redneck> 2024-02-16 검색). Smarsh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햇볕에 그을린 백인 농부들의 목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거야. 1900년대 초에 광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연대의 뜻으로 목에 빨간 반다나를 두르고 그 단어를 차용했어. 그리고 남부 백인 우월주의 정치가들은 백인 빈민과 흑인 빈민을 대립시키려고 그 단어를 이용했지”(Smarsh, 2018, 흥한별 역, 2020:129).

- 11) “미국의 농촌 거주자”(Merriam Webster,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hillbilly> 2024-02-16 검색), 특히 남부 애팔래치아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주로 빈곤한 농민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힐빌리의 노래」에서 Vance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백인이긴 하나, 북동부에 거주하는 미국의 주류 지배 계급인 와스프(WASP)는 아니다. 나는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의 핏줄을 타고난 데다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수백만 백인 노동 계층의 자손이다. 우리에게 가난은 기풍이나 다름없다. 우리 조상들은 대개 남부의 노예 경제 시대에 낄낄 팔이부터 시작하여 소작농과 광부를 거쳐 최근에는 기계공이나 육체노동자로 살았다. 미국인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힐빌리(Hillbillies), 레드넥(Rednecks), 화이트트래시(White Trash)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들을 이웃, 친구, 가족이라고 부른다”(Vance, 2016, 김보람 역, 2017:12).
- 12) 2005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실린 신조어로 ‘어린이’를 의미하는 19세기 집시 언어 ‘chavi’에서 유래된 말이다. 사전적으로 “무례하고 무지한 행동과 (진품이나 모조품)의 디자이너 브랜드의 패션을 즐기는 하층 계급의 청소년”을 지칭한다 (<http://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chav>: 2024-02-14 검색). 2000년대 이후 대중매체에서 영국 노동자계급 출신의 불량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재현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영화 <킹스맨(2015)>이 대표적이다.
- 13) 청소년들의 24시간 기아 체험에서 시작한 국내 모금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했다. “가장 모금이 잘 되는 것은 영양실조예요.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것은 100퍼센트 항상 모금에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뼈쩍 마른 애를 보여주려면 다 옷을 벗겨야 할 수밖에 없어요 .... 사실 저도 셸럽(연예인)이 오기 전에 준비

하잖아요. 최대한 보일 수 있게. 그래야 셸럽(연예인)이 봤을 때 최대한 바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얇은 옷으로 입히고 최대한 제일 안 좋은 옷으로 입히죠.”(장석빈, 2018:46). 해외에서도 자선기관들이 모금을 위해 개도국 사람들을 “구걸하는 눈, 부풀어 오른 배, 굶주린 영혼”과 같이 이른바 “굶주리는 아동의 호소(Starving Baby Appeal)”를 통해 이들 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해 왔다가 주장한다(Nathanson, 2013:104).

- 14) 인도 다라비 지역의 슬럼을 Sharma(2000)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것은 사람들의 창의력과 진취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보조금이나 복지 혜택 없이 살아남은 이야기이다. 정장부터 가죽 제품, 사탕, 파파즈(papads), 장신구까지 생산하는 곳을 그냥 ‘슬럼’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Sharma, 2000: 78-79; McMichael, 2011, 조효제 역, 2013:300에서 재인용).
- 15) 비주택은 적절한 주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거처에 대한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며, 통계청에서는 이를 ‘주택 이외의 거처’로 정의한다. 이처럼 주택으로 정의되지 않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비주택에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촌, 쪽방을 비롯하여,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 PC방이나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다.

## 참고문헌

- 강지나, 2023,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 파주: 돌베개.
- 교육부, 2015,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 교육부, 2022,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구정화·한진수·정필운·설규주·장준현·정석민·박정애·엄정훈·허은경·김동환·김민수·옹진환, 2017, 「중학교 사회 2」, 서울: 천재교과서.
- 국가인권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 2019,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 김다원·한건수, 2012, “‘사실’과 ‘재현’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다시 보기: 초·중학교 사회 교과서 아프리카 서술 내용

- 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7(3), 440-458.
- 김민성, 2013,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통한 지리 교과서 재구성 전략 르완다를 사례로” 사회과교육, 52(2), 59-72.
- 김수현, 2022, 「가난이 사는 집, 파주 오월의 봄.
- 김영순·박선미·황규덕·조수진·김부현·신현각·이은상·김세배·박찬정·이금란·김용걸·김용·정지만·이수연, 2017, 「중학교 사회 2」, 서울: 동아출판.
- 김왕근·이경향·김민준·김수영·김유신·김정호·박영실·박종국·유세은·이은영·이주희·장은자·조민자·최이선, 2022, 「사회 6-2」, 서울: 교학사.
- 김지숙, 2017, “빈곤포르노현상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국내 온라인 모금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수·문대영·조성호·김숙·문승규·이강준·최영아·이희원·손영찬·오두환·김신정·이은주·박진만·양설·이상금, 2017, 「중학교 사회 2」, 서울: 미래엔.
- 김춘식·채영길·정낙원, 2015, “한국 미디어의 아프리카 묘사 방식과 수용자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지역연구, 18(5), 219-252.
- 모경환·이동엽·손유정·채은경·이기규·배영호·양재영·이수룡·김지원·백현민·김지윤·김영현·홍승표·오고은, 2022, 「사회 6-2」, 파주: 김영사.
- 박병기·박철용·이영호·이우평·김신철·김지현·이철훈·서정일·김원일·강봉균·김민재·신희정, 2017,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천: 비상교육.
- 박영석·김다원·최병택·조윤호·윤준기·이병호·조수진·전혜은·전재원·김용걸·허영훈·조수진·이서운·이지영·한성범·오지영·권한님·이지원·김정아·김경미·안호빈·김성광·강윤정·서현정, 2022, 「사회 6-2」, 서울: 동아출판.
- 박용조·남호엽·신범식·이동원·차보은·조아라·임진우·이서영·곽병현·이광원·오진태·나경훈·전혜린·유진태·민윤·정필운·임용덕·김호·김만규, 2022, 「사회 6-2」, 서울: 천재교과서.
- 박인현·이간용·은지용·이해영·김부경·김소희·김승미·김일두·김현주·박관훈·박선경·박지수·손은지·이윤정·장혁준·최영석, 2022, 「사회 6-2」, 서울: 지학사.
- 박종관·홍현철·양향자·윤지현·김기남·김지호·신혜은, 2018, 「고등학교 여행지리」, 서울: 천재교과서.
- 박형준·신정엽·이봉민·서현진·김현철·박서연·이정식·김봉수·조영매·이혜란·고인석·신정아·김찬미, 2017, 「중학교 사회 2」, 서울: 천재교과서.
- 신명호, 2013, 「빈곤을 보는 눈」, 고양: 개마고원.
- 신정엽·이정식·이경희·양희경·김봉수·유상철·박재현·박찬영·박철진, 2017,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천재교과서.
- 오수진, 2018, “Slum tourism as a tool for urban-regeneration: case study of Gwaengiburi-Maeul, Incheon,” 관광경영연구, 22(4), 1109-1126.
- 이민부·조영달·김왕근·김기남·김도영·김태환·박세구·박찬선·박철용·이병인·정명섭·최종현, 2017, 「중학교 사회 2」, 서울: 박영사.
- 이진석·강정구·신승진·김경오·조지욱·박현진·나혜영·안효익·이현진·최정윤·김진태·최윤경, 2017, 「중학교 사회 2」, 서울: 지학사.
- 이진석·박지운·송훈섭·허수미·조승연·신복숙·서범석·정명섭·이성국·강은경·박정연·이태성, 2017, 「고등학교 통합사회」, 서울: 지학사.
- 장석빈, 2018, “아프리카 아동을 위한 모금방송의 부정적 이미지 사용과 모금액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희망TV SBS>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창우·최원희·김진영·문일호·박홍인·박정운·박용우·전정재·신종섭·한경화·박재현·이주은·김윤정, 2017, 「고등학교 통합사회」, 서울: 미래엔.
- 조문영, 2022, 「빈곤 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의 인류학」, 파주: 글항아리.
- 조성욱, 2018,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인식 변화를 위한 지리 교육과정 구성 방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1), 73-87.
- 조성호·이강준·홍철희·박성계·백승진·신준, 2022, 「고등학교 여행지리」, 서울: 씨마스.
- 조은, 2012,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서울: 또하나의문화.
- 조철기, 2014, “지리교과서에 재현된 어린이 및 청소년 지리 분석” 사회과교육, 53(4), 29-45.
- 최성길·최원희·강창숙·박상준·최병천·조일현·권태덕·이수영·조철민·조성백·김상희·강봉균·정민정·김연주, 2017, 「중학교 사회 2」, 과천: 비상교육.
- 한지은, 2020, “중국 황토고원의 동굴집 야오둥(窯洞)을 둘러싼 재현의 정치” 한국지리학회지, 9(3), 457-473.
- 허종렬·곽혜송·권혜정·김옥진·김혜진·박기범·석병배·윤요순·이선영·이정식·이지혜·임기환·정근민·정동훈·정미란·조의호·한동균·홍미화·황은희·황재인, 2022, 「사



- 회 6-2], 서울: 금성출판사.
- 황병삼·천종호·이준구·이해창·천재호·강재호, 2017, 「고등 학교 세계지리», 서울: 금성출판사.
- Banerjee, A. and Duflo, E., 2011, *Poor Economics: a Radical Rethinking of the Way to Fight Global Poverty*, New York: Public Affairs(이순희 역, 2012,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MIT 경제학자들이 밝 혀낸 빈곤의 비밀」, 서울: 생각연구소).
- Blaut, J., 1993, *The Colonizer's Model of the World: Geographical Diffusionism and Eurocentric History*, New York: Guilford Press(김동택 역, 2008, 「식민주 의자의 세계 모델: 지리적 확산론과 유럽중심적 역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Bruder, J., 2017, *Nomadland: Surviving America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cago: W. W. Norton & Company(서재인 역, 2021, 「노마드랜드」, 서울: 엘리).
- Davis, M., 2006, *Planet of Slums*, London: Verso(김정아 역, 2007, 「슬럼, 지구를 뒤덮다-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화」, 파주: 돌베개).
- Desmond, M., 2023, *Poverty, by America*, London and New York: Allen Lane(성원 역, 2023, 「미국이 만든 가난: 가장 부유한 국가에 존재하는 빈곤의 진실」, 파 주: 아르테).
- Duncan J.S., 1990,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an King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asterly, W., 2006,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황규득 역, 2011, 「세계의 절반 구하기: 왜 서구 의 원조와 군사 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서울: 미지박스).
- Freire-Medeiros, B., 2009, The favela and its touristic transits, *Geoforum*, 40(4), 580-588.
- Jackson, P., 1992, *Map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amers, M., 2005, Representing poverty, impoverishing representation? a discursive analysis of a NGOs fundraising posters, *Graduate Journal of Social Science*, 2(1), 37-74.
- Lewis, O., 1975, *Five Families: Mexican Case Studies in the Culture of Poverty*, New York: Basic Books.
- Lister, R., 2021, *Poverty*(2nd edition), Cambridge: Polity (장상미 역, 2022, 「풍요의 시대, 무엇이 가난인가: 숫 자가 말해 주지 않는 가난의 정의」, 서울: 갈라파고스).
- McGravey, D., 2017, *Poverty Safari*, Edinburgh: Luath Press(김영선 역, 2020, 「가난사파라-하층계급은 왜 분 노하는가」, 파주: 돌베개).
- McMichael, P., 2011,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New York: Sage Publications(조 효계 역, 2013, 「거대한 역설-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 지는가」, 서울: 교양인).
- Nathanson, J., 2013, The pornography of poverty: Reframing the discourse of international aid's representations of starving children,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8, 103-120.
- Rolfes, M., 2010, Poverty tourism: Theoretical reflections and empirical findings regarding an extraordinary form of tourism, *GeoJournal*, 75(5), 421-442.
- Sachs, J., 2005, *The End of Poverty: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Time*, New York: Penguin Press(김현구 역, 2006, 「빈곤의 종말」, 파주: 21세기북스).
- Said, E., 1978, *Orientalism*, New York: Patheon Books(박 흥규 역,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 Sen, A., 1983, Poor, relatively speaking, *Oxford Economic Papers*, 35(2), 153-169.
- Sen, A., 1992,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Clarendon Press(이상호 역, 2008, 「불평등의 재검토」, 서울: 한울 아카데미).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김원기 역, 2013, 「자유로서의 발전」, 서울: 갈라파고스).
- Sharma, K., 2000, *Rediscovering Dharvi: Stories from Asia's Largest Slum*, New Delhi: Penguin.
- Sheppard, E., Porter, P.W., Faust, D.R., and Nagar, R., 2009, *A World of Difference: Encountering and Contesting Development*,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남 수연 역, 2019, 「차이의 세계: 비판지리학의 시선이 개 발을 묻다」, 서울: 박영사).
- Shields, R., 1991, *Places on the Margin: Alternative Geographies of Modern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ibley, D., 1992, Outsiders in society and space, in

- Anderson, K. and Gale, F., eds., *Inventing Places: Studies in Cultural Geography*, Melbourne: Longman Cheshire, 107-122.
- Smarsh, S., 2018, *Heartland: A Memoir of Working Hard and Being Broke in the Richest Country on Earth*, New York: Scribner(홍한별 역, 2020, 「하틀랜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쫓따망하는 삶에 관하여」, 서울: 반비).
- Smillie, I., 1995, *The Alms Bazaar. Altruism under Fire Non-profit Organisation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London: IT Publications.
- Steinbrink, M., 2012, 'We did the slum!'-urban poverty tour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Tourism Geographies*, 14(2), 213-234.
- The Newcastle Social Geographies Collective, 2020, *Social Geographies: an Introduction*, London: Rowman & Littlefield(박경환·심승희·이재열 역, 2023, 「경제넘기와 함께하기를 위한 사회지리학개론」,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London: Penguin.
- Townsend, P., 1993, *The International Analysis of Poverty*,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and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OPHI), 2023, *2023 Global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MPI): Unstacking Global Poverty: Data for High Impact Action*, New York.
- Vance, J.D. 2016, *Hillbilly Elegy*, London: William Collins (김보람 역, 2017, 「힐빌리의 노래 위기의 가정과 문화에 대한 회고」, 서울: 흐름출판).
- Walker, R., 2014, *The Shame of Pover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R., 1973, *The Country and The C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이현석 역, 2013, 「시골과 도시」, 파주: 나남).
- Yapa, L., 2002, How the discipline of geography exacerbates poverty in the Third World, *Futures*, 34(1), 33-46.
- Merriam Webster, <https://www.merriam-webster.com>
- Oxford Languages, <https://languages.oup.com>
- 교신 : 한지은, 28173, 충청북도 청주시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jinnyhan@knue.ac.kr)
- Correspondence: Ji-Eun Han, 28173, 250 Taeseongtabyeon-ro,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Second Colle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jinnyhan@knue.ac.kr)
- 투고접수일: 2024년 2월 26일  
심사완료일: 2024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22일